

#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 회복세

### 선박 수주 증가·정부 지원 정책 힘입어...경기회복 청신호 LNG·LPG선 신규물량 전체 절반...고용도 호전세

불황의 늪에 빠졌던 전남 서남권 조선산업이 선박 수주 증가와 정부의 지원 정책 등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은행 목포본부 조사한 전남 서남부지역 실물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제조업 생산과 고용, 소매점 매출 및 수출이 모두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대불산단 내 제조업체 및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은 이 기간 4310억원으로, 전년 동월 3470억원 대비 24.2%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주요 조선업체 생산액은 2866억원으로, 전년 동월(2369억원) 대비 2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조선업체별로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현대중공업(영암)과 대한조선(해남)의 수주잔량(400만6000CGT)은 전년 동기(220만1000CGT)에 비해 82.0%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늘어난 신규 수주물량이 한몫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현재 이들 조선소의 수주물량은 26만4700CGT로 2017년 전체 16만5700CGT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선박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고부가가치선인 LNG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LNG와 LPG선의 신규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인 58.1%를 차지해 경기회복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신규물량의 증가는 지난 2017년 이후 2년 연속 하락하던 선박의 인도물량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CGT(Compensated Gross Tonnage·환산톤수)는 선박의 단순한 무게(GT)에 선박의 부가가치,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한 계수를 곱해 산출한 무게 단위이다.

이처럼 서남권 조선 산업이 점차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입주업체 수도 339개로, 전년 같은 기간 328개에서 3.4% 증가했고, 가동업체 수도 286개에서 297개로 늘었다.

전남 서남권 지역의 총 수출도 선박 수출이 증가하면서 3억8000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1억2000달러)에 비해 226.5%가 증가했다. 이는 8000달러에 그쳤던 선박 수출이 1년 만에 3억5000달러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고용도 호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10만 5400명으로, 전년 동월(9만5700명) 대비 10.2% 증가한 반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609명으로 3.8% 감소했다. 이 가운데 대불산단 소재 제조업체 및

주요 조선업체의 상시 고용인원(도급·파견·견제)은 1만6400명으로 전년 동월 1만 4000명 대비 17.3% 증가했다.

전남 서남권의 경기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데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도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목포시와 영암·해남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과 임종전환 지원, 보충한도 상향, 보증료율 인하,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 관계자는 "수주 증가, 환경규제 등에 따른 친환경선박 수요 증가, 정부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조선업황 전망이 밝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확대에 따른 교역감소, 강재 등 부품가격 상승 등은 조선업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목포·김준석 기자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공식 18일 오전 광주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옥상에서 열린 전일빌딩 리모델링 기공식에서 참석자들이 버튼을 누르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에너지밸리 산단 산업용지 16만5000㎡ 연내 공급

### 2019 성과 창출계획 보고회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남구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6만5000㎡(5만평)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18일 오전 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성과 창출계획 보고회'에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연내 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산업시설용지 16만5000㎡(5만평) 공급 및

첨단3지구 그린벨트 해제 ▲공공기관 제안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제안 및 참여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공급 및 공동주택 1000세대 건립 추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위한 봄 조성 등의 성과 창출계획서에 서명해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도시공사는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이외에도 에너지밸리 내 산업시설용지에 에너지 관련 기관 및 기업들이 조기 입주할 수 있도록 올해 16만5000㎡를

공급(2021년 완공 예정)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특구인 첨단3지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사업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북구와 광산구, 장성군 일대에 379만7000㎡ 규모로 조성되는 첨단3지구는 100대 국정과제인 AI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와 국립심혈관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에너지밸리 산단 완공, 첨단3지구 조성·입주 등으로 각각 1만9389명, 5만1772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공사는 내다

봤다.

또 도시공사는 남구 백운광장 중심지가 지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에 참여하는 한편 연내에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공공주택 1000세대를 건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섭 시장은 "민선 7기는 혁신으로 시작해서 혁신으로 성공할 것이다"면서 "도시공사도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도시재생 선도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길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영세 소상공인 광주상생카드 수수료 면제 추진

이용섭 시장, 상인연합회 임원과 간담회

광주시가 오는 3월 초 출시하는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수수료를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8일 광주상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상인연합회 임원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광주시가 장기간에 걸친 경기불황, 소비환경 변화 등에 따른 매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상인들은 지역화폐인 광주상생카드 수수료 제로화, 빚고을 소상공인 지원 등이 예산 증액, 광주상인연합회관 건립,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유치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 시장은 "광주상생카드를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사용이 제외된다"면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골목상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제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또 "업체를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안내·홍보하고 접수까지 대행하는 윈스톱 서비스인 '빚고을 소상공인 지원'을 광주만의 고유 제도로 발전시켜겠다"며 "성과가 있으면 관련 예산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상인연합회장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보호와 상권진흥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건의하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순천·여수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중심데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8일 민선7기 첫 '도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와 여수시가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사업의 중심도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도민과의 대화 첫 방문지로 순천시, 여수시 등 동부권 대표도시를 찾아 지역 현안사항 및 도민 불편사항을 수렴해 도정에 반영키로 약속했다.

김 지사는 오전 순천시청에서 열린 순천 시민과의 대화에서 "순천시는 영남·충청권을 포함해 남해안권중심도시로, 전남도 1조원 예산 첫 물과, 인구 증가도시, 국가정원 1호 도시 등 전남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동부권 제2정시와 관련, "공약인 동부권 제2정시 건립에 박차를 가해 일주일에 한 번씩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제2행정부지사 등 동부권에 근무토록 하고 행정을 총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김 지사는 "순천시를 대한민국 생태도시로 키우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발돋

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사후발달의 교통 요충지인 순천에 생태관광과 정원산업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토록 하고, 4차 산업혁명 박람회와 e-스포츠 경기장 등 첨단시설을 집적한 미래산업특구로 조성해나간다면 새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많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날 순천시가 맺은 지원 건의한 미세먼지 차단 시민의숲 조성, 잡월드 진출으로 환경개선 사업 등에 대해 흔쾌히 동점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여수시청에서 열린 여수시민과의 대화에서 "여수시를 세계적 해양관광휴양도시로 키우고, 국제컨벤션도시로 발돋움토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호텔·백야 등 연도교 사업이 이번 정부의 여타면제 대상에 포함되고 경전선이 여타 재조사를 통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여수가 남해안권 중심도시로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일 기자 cki@kwangju.co.kr

## 광주수영대회 마스코트 인형 온라인 판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일한 국제 체육 행사인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마스코트인 '수리와 달이' 인형을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대회 라이선스 상품의 공식 온라인 매장에서 대회 기념품들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

주로 판매할 상품은 마스코트 인형, 배지, 열쇠고리, 텀블러, 타월, 우산 등 10여 종이다. 앞으로 각종 인형과 봉제류, 생활용품류, 문구·원구류, 잡화 등 추가 상품

50여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상품구매는 홈페이지(<https://store-gwangju2019.com>)로 들어가서 할 수 있다. 국문과 영문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

조직위는 이번 온라인 매장 개장을 기념해 수리와 달이 마스코트 인형을 3월 19일까지 20% 할인해 판매한다. 또 오는 4월부터는 광주시장, 서울역, 용산역, 송정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설에 판매점에 설치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선로 걱정없는  
엘림형 태양발전소

선착순 분양

'최소 25년 이상' 마르지않게 정성들인 노후 연금식 엘림형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100Kw	동식물재배사 위탁, 영농(임대)
년 4,000만원 이상 수익가능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한국전기공사협회

자기자본 투자금 대비  
년 40% 수익 기대

2019년 8월~10월 준공예정

현금 투자금 회수기간  
▶ 최단 2년 6개월 가능

계약금 1천만원  
선착순 50개소 접수 중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